

HI Economy

비트코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 시카고상품거래소, 금년말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예정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금년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연말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될 공산이 높다.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나선 배경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회장인 테리더피도 성명서를 통해 “발전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증가를 고려,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머니투데이, 11월 1일 기사 참조)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모든 비트코인의 가치는 1,056억 달러(코인마켓닷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계획 발표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427달러(11월 1일 장중기준)를 기록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중에만 약 54% 급등했다.

■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의 의미는 ?

비트코인의 실체 여부 등 각종 논란에도 비트코인이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실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선물거래소에 거래가 시작될 경우 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새로운 투자 자산군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직 정식 화폐로써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금, 원유 등 각종 원자재와 같은 투자상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과 같은 역할 혹은 헤징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거래될 여지도 높아졌다.

그리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이 향후 가상화폐를 새로운 통화 내지 결제수단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듯 국제통화기금

Chief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Economist

진용재

(2122-9206)

yj@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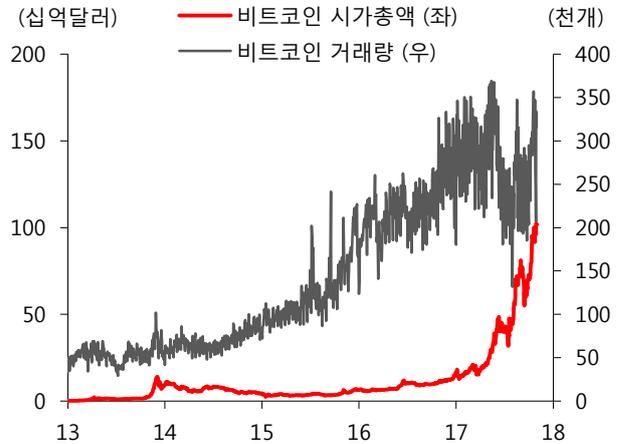
(IMF) 총재도 전 세계 주요 금융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란, 특히 가격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1>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비트코인 가격



<그림 2> 비트코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



자료: Bloomberg, 블록체인정보,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진용재)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역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